



독서에 생각을 더하다... 전남대 '광주·전남 특' 열풍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

시·도민 투표로 '한책' 선정...작가 초청 강연회·토론회 개최
89개 클럽 800명 참여...책 매개로 한 담론공동체 형성 기여

전남대가 소통과 담론 형성을 위해 시작한 책임기 운동이 지역사회에 호응 아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지방문 총장 취임 직후인 2013년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건강담론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 아래 범 시·도민 책임기 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이하 '광주·전남 특')를 시작해 독서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전남대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직접 투표로 한 해 동안 읽을 책('한책')을 선정했고, 시·도민이 그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담론(談論)문화'를 만들었다. 최근 국내·외 문화기행을 다녀온 것으로 2년차 사업을 마무리했다.

'광주·전남 특'은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방식의 '책 읽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지역사회의 대표적 '독서 문화운동'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전남대는 첫해인 2013년, '광주가 읽고 특 talk 하다(광주특)'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 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첫 해 '한책' 선정을 위한 투표에 예상보다 많은 6464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이자 2년차인 지난해 전남으로 그 대상을 확대

했다.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 지난해 '한책' 선정 투표에도 지역민 1만 3323명이 참여, 더 높아진 열기를 보여줬다.

2013년 한책으로는 박석무 작가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선정되어 지역민이 함께 책을 읽었다. 이어 작가초청 강연회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책 내용인 '다산 정약옹'의 효제와 용기, 독서와 근검 사상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4년엔 공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한책'으로 선정했다. 지역민들은 한국전쟁 때 목숨을 걸고 1만400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한 선장 마리너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전남대학교는 특히 이 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 '광주·전남 특' 독서클럽을 운영,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첫해인 2013년에는 각계 각층 57개 클럽(577명)이 참여해 '한책'과 동반도서 10권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지난해에는 더 늘어 89개 클럽 800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해 역시 한책 및 동반도서(10권)의 내용과 생각을 공유했다. 전남대학교는 이들의 활동을 평가해 연말에 우수 클럽 시상식을



지난해 9월에 열린 '한책 특 콘서트'에서 공지영 작가가 지역민 400여 명과 함께 장편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에 대한 생각을 주고 받았다.

갖기도 했다.

전남대는 지난 2년 동안의 '광주·전남 특' 진행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도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독서인구를 늘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하고 소통하는 거점 국립대학교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남대는 2015년에도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3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5월 시·도민 직접 투표로 올 한 해 함께 읽을 '한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문 총장은 "광주·전남 특'은 지역민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담론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많은 시·도민이 참여해 건강한 독서 문화를 확산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中운남농업기술대학 초청 교류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외협력처는 최근 중국 운남농업직업기술대학 부총장과 대외 교류처장, 경제관리학원 등 국제교류 방문단에 대한 환영식 및 교류 행사를 가졌다. <사진>

중국 국제교류 방문단은 한국의 자매대학인 광주여대를 방문한 직후 캠퍼스 내에 있는 도서관의 첨단시설과 미용학과, 항공서비스학과의 실

습실을 견학했다. 특히 미용학과와의 교육 및 실습 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운남성에 있는 운남농업직업기술대학은 2002년 설립된 3년제 대학교로 6000명의 재학생과 400명의 교직원인 재직중이며 경제관리, 원예 예술 등의 학과가 특화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특성화 학과 맞춤형인재 양성으로 취업률 고공행진

안전광학과 등 학생선호도 높아

전문대학의 성격상 보건의료의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만 동강대학교에서는 높은 취업률과 장래성 때문에 입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일부 학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기학과로 꼽히는 안전광학과는 경우 우수한 안경사, 검안사 양성을 위해 최고 실습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눈의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경

에 관한 기술과 지식도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 안경체인, 외국인 회사(다국적기업)와의 취업 연계 사업, 대학기 연구프로젝트 수업 등을 펼치고 있다. 미국 안경원 인턴십도 실시해 해외 취업도 돕고 있다.

전기정보통신과는 최근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전KDN 등이 이전한 데 이어 한전이 나주를 '빛가람 에너지밸리'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실리곤벨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 등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창조적인 전문기술인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쇼핑몰디자인창업과의 경우 동강대에서 정한 특색학과로, 특히 교묘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학과는 예비 CEO를 위해 상품 선택에서 구매, 사진촬영, 등록법, 디자인, 프로그래밍,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의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2015학년도 등록금 0.24% 인하

장학제도는 확대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2015학년도 등록금을 0.24%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호남대는 지난 2009년, 2010년 동결,

2012년 5% 인하, 2013년, 2014년 동결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내리기로 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적극 부응키로 했다.

또 등록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폭넓게 지원해 왔던 다양한 장학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정신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호남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다섯 차례나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면서 대학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도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지역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서 특화된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월산동 지하1층 지상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장성 다음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4층중 3층, 정남향
광주에서 30분 거리
현재 전세 4500만원 임대중
급매 5500만원(즉시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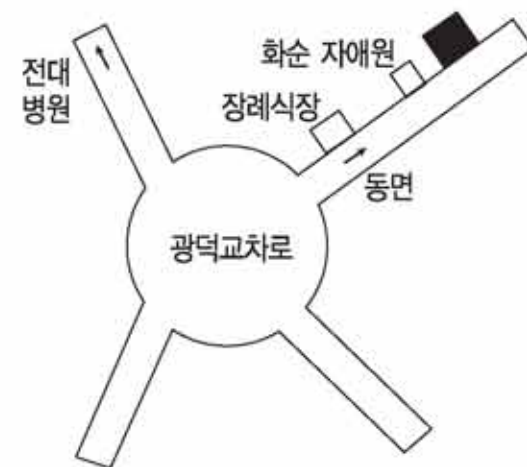
빌라 매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5층중 3층, 신축,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신우APT 부근, 즉시 입주가
급매 1억 5500만원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328평, 33필지 중 1
택지조성 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매매 1억 3120만원
주인 직매 H. 010-3605-5000